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윤석열의 권력은 실패다. 통합의 구심점은커녕 권력은 양극화된 진영대결의 한 축으로 전락한다. 대한민국 공동체 미래의 준비와 선로도 물론 불가능했다.

권력의 실패는 ‘정치의 실패’다. 견제와 균형의 붕괴는 입법부의 기능 상실과 권력 집중으로 이어진다. 문제해결 능력과 타협 부재의 정치는 정치 리스크를 높이고 결국 국민 신뢰를 잃는다. 민폐가 된 정치 리더십으로의 퇴행이다.

‘권력과 정치의 실패’는 제도적 결함의 결과로 ‘정당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정당 실패는 정당 역활의 상실로 제왕적 대통령과 야당 대표 권력으로서의 종속과 당내 민주주의 훼손 나아가 입법부 역활의 포기로 이어진다. 대의 민주주의의 기능 부전이자 위기 심하다.

윤석열 권력 종속의 국민의힘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나타난다. 2022년 4월 ‘검수완박’법안은 대통령 당선인의 반대로 여야 합의 4일 만에 무효화된다. 국민의 뜻이라는 게 합의 파기에 대한 여당 측의 공식 설명이다. 의원총회에서 추진까지 받았던 여야 협의안의 반복은 입법부의 자율성보다 대통령의 권력이 우선임을 상징한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의 ‘특정 세력의 유도 가능성’과 ‘민주당의 여론조작’ 그리고 ‘북한 지령에 따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사회복지회 부국장

지난 5월 8일, 전 세계와 가톨릭교회는 새로운 교황님이신 레오 14세의 선출 소식을 들었다. 전임 교황님 이신 프란치스코의 선종으로 안타까움과 슬픔에 젖어 있었지만 새로 선출되신 레오 14세 교황님을 통해 가톨릭 신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우려가 교차 되었다. 왜냐하면 교황 레오 14세는 첫 미국 출신 교황이시며 첫 선교사 출신 교황이시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국이며 자본주의의 발원지이자 중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출신의 교황이며, 남미 페루에서 20년간 가난하고 척박한 곳의 선교사로 사셨던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출신이시기 때문이다.

가장 부유한 나라 출신이셨던 분이 남미 페루의 가장 척박하고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듯, 많은 생각이 든다. 가톨릭교회에서 사제가 자신의 선교사로 자정한다는 것! 자신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 특히 가난하고 척박하며 열악한 처지의 선교지로 가겠다는 것은 엄청난 속고의 결단이다. 해외선교 사제로 살겠다는 것은 포기의 삶, 희생의 삶,

정당의 제자리 찾기

른 행동’ 등의 발언들은 여당 의원들에 의해 반복 된다. 대통령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권력 복종의 전형적인 여당 사립들이다.

이준석 대표 축출과 김기현 대표 당선과 강제(?) 사퇴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임도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된다. 집권 여당대표의 진퇴를 사실상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한 셈이다. 여당 국민의힘의 정당으로서의 자율성과 당내 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며 “야당이 된다 해도 야당으로서 견제기능조차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하는 이유다.

집권 여당 민주당의 가능성이 높은 지금 이재명 권력의 민주당은 삼권분립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를 구현하려 한다. 2022년 대선 슬로건 ‘이재명은 합니 다’의 구체적인 실천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재판 중지 법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정찰을 정치하여 야 한다’고 명시한다.

문지마 이재명 당선법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들의 뜻대로 개정이안 통과되면 이재명 후보의 해당 혐의는 자동 면소된다.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허위사실공표죄의 ‘행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1년 합헌결정을 내린 상황이라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

사법권 침해 우려와 정치적 압박 비판은 무시 된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나 사법살인으로 본다. ‘재판 4심제’로 불리는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확대안과 대법원장 정문화와 탄핵론으로 이어진다. 지난 3년에 걸쳐 완성된 이재명의 민주당이 가져온 당연한

아는 만큼, 사랑하는 만큼

죽음의 삶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선교사의 마음가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여 희생되시는 어린양의 모습이 원천이다. 어린양의 단순함과 받아들임과 내맡김의 모습은 선교지의 언어와 문화와 관습을 내 것이 되도록 가능하게 한다. 자기를 버려야 선교지의 삶이 가능하고 자기를 희생해야 선교지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할 수 있게 되며,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아야 가다리고 경청하여 선교지의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

이것이 가톨릭 신앙에서 말하는 ‘육화’의 신비이며 한국 천주교회가 잘 뿌리내리고 있는 ‘토착화’의 모습이기도 하다. 결국 가난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삶과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는지 알기 위해서는 또한 그 가난한 사람과 함께 가난하게 살아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톨릭 신앙인들은 자신을 비우면서 자신을 증명하게 되고 자신을 낮추면서 존재함에 감사드리며, 자신을 희생하면서 생명과 삶의 소중함을 알아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존재들이다. 선교지의 선교 사제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삶과 같다.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님이 20년 동안 남미 페루 특히 ‘치클라요(Chiclayo)’ 지역에서 선교사로 사셨다. 그 지역 사람이 되기 위해 언어는 물론 원주민들의 문화와 관습을 받아들였다. 가난한 농부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 속에 머무르셨다. 예수께서 인간이 되신 ‘육화’의 신비가 바로 선교

결과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압도적 당 대표 재선과 ‘비명횡사’의 2024년 총선공천으로 마무리됐다.

윤석열의 여당과 이재명의 민주당 모두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제왕적인) 개인권력 중심의 정당이다. 한국 정치에서 정당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보다는 권력의 팽증을 우선 한다. 집권당은 언제나 ‘청와대(윤산) 출장소’였다.

귀결은 입법부로서의 독립적 역활과 견제 기능의 상실이다. 당내 민주주의의 붕괴도 마찬가지다. ‘정당-정치-권력의 연쇄 실패’는 한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협이다.

이재명 개헌안은 대통령 권력의 분산과 국회 권한과 기능의 강화로 요약되는데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전제 될 때 성공 한다. 대통령과 입법 권력의 민주적 견제와 협력의 동적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제도적 협치 시스템은 권력의 건강한 긴장관계에서 시작한다.

정당의 실패는 다양성과 역동성의 당내 민주주의 파괴로 결말은 정당의 사회적 대표성 약화와 결여다.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당이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며 “현재의 정당체제로 민주주의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당의 제자리 찾기(성공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없이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권력 견제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권력은 조심히 사용해야 하고 민주당 안에서 견제와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권력폭주가 있을 때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직언한다.”는 김상욱 의원의 다짐이 민주당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들의 받아들임과 순응의 원천이다. “아는 만큼 다가가고, 사랑하는 만큼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알지 못하면 다가갈 수 없고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은 사랑하지도 함께 살아가지도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면 등급을 나누고 우월의식으로 차별과 폭력을 양산할 뿐이다.

레오 14세 교황님의 착박한 선교지의 경험인 어둠에 갇혀 있거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알아볼 것이다. 선종하신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주된 관심사였던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레오 14세 교황님의 돌봄의 시선은 지속될 것이라 예상해 본다. 그리고 전쟁과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세상을 향해 새 교황님은 평화를 위해 힘쓸 것이고 모두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선대 교황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지식인들의 모습은 다 안다고 자부하는 것이다.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는 것인데 그것이 전부라 생각하는 것이 모순이다. 정말 아는 사람은 조용하고 겸손하여 경청한다. 안다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이기에 쉽게 판단하거나 일반화시켜서도 안된다. 다만 바라보고 함께할 뿐이다. 경험은 좋은 나침반이 될 것이다. 그 경험이 가난과 척박함과 소외였다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며 존귀한 것인가를 알 것이다. 내가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이렇게 본다

에 대한 무한책임의 출발점이 된다.

유권자들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선택을 위해서 후보자들이나 소속정당 등과의 사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중립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국가사회에 대해서 어떤 사고와 행동 성향을 갖는지에 대해서 사적 편견과 감정을 떠나 비판적 사유를 통한 냉엄한 사리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선택이란 무엇일까? 공동체 이익에 대해서 유권자 개개인이 판단해서 선택할 결과의 총합이어야 한다. 만약 유권자들이 사적 이익으로 선택한 다수결은 자유민주주의의 일반의지로 보기 어렵고 시스템 붕괴를 야기한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와 가장 핵심적인 공약 내용, 그리고 토론 시정을 위한 필자의 토론회 내용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사회분야에서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주제를 놓고 토론한다. 자연과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난 미국 선거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 방안에 관해서는 정치권의 극명한 대립 논쟁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화석연료 에너지 정책이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정책에 비교우위를 갖게 되었다. 어떤 에너지를 싸게 사서 소비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갖고 후보자들의 언행을 분별해 보고자 한다.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놓고 포퓰리즘적인 선동과 거짓말을 하는지를 분별해 보려한다.

정치 분야에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정치 개혁

과 개혁, 외교·안보 정책 관련 문제를 놓고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공약 표명과 토론을 하게 된다. 후보자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외교안보를 어떻게 할지를 관찰할 것이다. 동맹 외교와 일반 수교국가 외교, 민간 외교 등을 후보자들이 잘 구별하여 국익 극대화 외교에 기여할 수 있는지도 분석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지나치게 변하는 지도자는 국제사회의 외교상 결례로 왕따를 당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익을 훼손하게 된다.

어느 국가사회에서도 갈등과 양극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다만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 갈등을 줄일지가 관건일 것인데 후보자들의 그에 대한 입장을 비교해 볼 것이다. 특히 국회의 입법독재와 현상과 탄핵 남발 등 입법부의 행정부와 사법부 등에 대한 권한 행사가 민주주의의 견제균형 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그 개선 방안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과거 정치후진국 시절 필요했으나 현재남미 지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선거공영제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싶다.

민주화 과정에서 대동한 1987년 헌법을 대대적으로 손질을 해서 분별력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로 도약을 해야 한다. 역사는 새롭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과거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진화 발전한다. 이번 TV선거방송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되어가고 깨우쳐 가는 분별력 있는 한 명의 유권자’로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희생하면서 대한민국의 공공이익을 추구해 나갈지를 지켜볼 것이다. 후보자들이 토론회에서 행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준엄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고 싶다.

社說

5·18 사적지 국가 주도로 조성 운영 해야

광주시가 제안한 ‘5·18 정신계승 국가 프로젝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에 포함됐다. 프로젝트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5·18 관련 법 정비, 국가 주도 5·18 사적지 지정 및 보존 활용 등 크게 세가지로 구성됐다.

헌법 전문 수록과 법 정비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마련돼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5·18 사적지를 국가가 주도로 조성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5·18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돼 있지만 사적지 관리는 광주시가 맡다보니 예산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광주의 5·18 사적지는 모두 29개에 달하는데 일부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훼손됐고 옛 광주교도소 등 규모가 큰 곳은 광주시 예산으로는 감당하기가 벅하다.

광주시가 건의한 5·18 사적지 보전 활용 방안을 보면 핵심은 5·18 구묘지를 추모와 기념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관을

포함해 국가민주공원으로 조성해 달라는 것이다.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가칭 5·18 미래세대관으로, 옛 광주교도소에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유지하고 505보안부대 옛터에는 국가폭력기억관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사업비는 국비 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물론 사업비가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사적지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 옛 광주교도소는 무고한 시민들을 집단 수용한 암매장 지정돼 있지만 사적지 관리는 광주시가 맡다보니 예산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제주 유세에서 국가폭력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국가폭력의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자 민주주의 역사를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5·18 사적지이다. 5·18 사적지가 국가 주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무대책 노쇼 처벌 강화로 발본색원 하길

음식이나 물품 구매를 요청했다가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선거와 금호타이어 화재 등 이슈를 이용한 노쇼 사기까지 등장해 영세 자영업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 일도 발생했다.

광주광산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고급 양주 대리결제로 24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사기범은 캠프 관계자들과 단체로 저녁식사를 하러 가겠다고 예약전화를 걸었는데 이날은 이 후보의 광주 일정이 있어 피해자가 쉽게 속았다.

18일에는 금호타이어 화재 현장을 사칭한 사람이 남구의 한 식당에 전화를 걸어 “포장해 가겠다”며 김치점 15인분을 주문한뒤 나타나지 않다가 다시 전화를 걸어 방역복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광주·전남에선 울려노쇼 사기가 급증

하면서 경찰이 지난달 25일 노쇼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오히려 범죄가 더 늘고 있다. 광주의 경우 경보 발령 전인 4월 20일까지 31건이 발생했는데 반해 발령 이후 한 달도 안돼 46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노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들이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예약금을 받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영세한데다 불경거속에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리려는 욕심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경찰 등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과 대처가 중요하더라도 자영업자들에게 조심할 것만 당부하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사법기관은 노쇼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도 고려해야 한다. 노쇼는 영세 자영업자를 울리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발본색원 하길 바란다.

無等鼓

프로 야구는 가장 오랜 시간 결승선을 향해 달리는 스포츠다. KBO에서는 10개 구단이 144경기를 치르면서 우승을 다툰다. 27개의 아웃카운트를 놓고 1주일에 6일 전쟁을 벌인다. 쉽지 않은 종목이다.

이기는 날도 많지만 지는 날도 많다. 지난해 KIA 타이거즈는 2위 삼성 라이온즈를 9경기 차로 따돌리고 정규시즌 우승을 이뤘다. 압도적인 1위였다 하지만 KIA의 승률은 6할(0.613) 조금 넘는다. 87번 이겼고, 두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했

카운트’를 건 도박이다. 성공하면 상대의 분위기를 꺾고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지만 실패의 대가는 이닝 또는 경기 종료가 될 수 있다.

김규성은 3루 도루에 성공했고 포수의 송구 실책까지 유도해 왜기 득점을 만들었다. 김규성의 과감함에는 조재영 작전 코치가 해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다. 도전을 해야 실패든 성공이든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김규성은 이후 뛰는 데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했다.

실패를 대하는 자세

실패는 오�히려 발전의 동력이 된다고도 했다. 실패 속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김규성의 이야기였다. 이대형 SPOTV 해설위원도 ‘실패’에 대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기회가 많고 적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했을 때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

이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실패를 하면서 배우고, 돌파구를 찾을 때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김여울 체육부 차장 wool@

지난 주말 KIA 내야수 김규성은 두산과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 3루 도루에 성공했다. 포수를 기준으로 2루보다 3루 거리가 더 짧다. 그만큼 3루 도루는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 일단 뛰는 자체가 ‘아웃

‘6·3 선거 공감’ 기고 <4>



심연수
광주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어떤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 것인가? 후보자의 사익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해서, 대한민국 공동체의 공익을 추구하는 그런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선출된 대통령이 TV선거방송토론회 등을 통해서 공동체 이익을 떠난 사익을 추구하는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용납하는 법과 제도를 가진 사회를 우리 유권자들은 바라지 않는다.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여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토론회를 기대한다.

대통령 후보들의 진실된 공익 추구적 말과 행동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요령이 필요하지 않을까? 후보자들의 공약과 말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성을 파악한 다음 이들이 한 말과 행동의 도덕성을 파악해 본다. 다음으로, 이들의 언행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추론해보면서 왜 이런 말을 하는가를 계속 반복해서의 심을 갖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도출해 나간다. TV선거방송토론회 등에서 후보자들이 한 말은 법률적인 측면을 떠나서 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윤리도덕적인 책임의 근원이자 동시에 선출 대통령으로서의 국가와 국민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체 부 220-0648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제 2 사 회 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